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증장애인, 부양의무가구 이어 수급가구서도 제외

복지부, 예산에 반영…국회 통과시 내년 1월부터 적용

구분 (시행시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내용
1단계 ('17.11월)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老-老 부양, 障-障 부양'인 경우**
2단계 ('18.10월)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단계 ('19.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는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도 기준 적용 제외 ▸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18.7월)에 따라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22년 1월 시행예정이었으나, '19.1월부터 조기 시행
4단계 ('22.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에 대한 기준 적용 제외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했던 중증장애인 2만여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결정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생계급여에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재산 등(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선정 기준을 밑돌더라도 1촌 직계혈족(부모, 딸·아들) 및 그 배우자에게 일정 수준 소득·재산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국가 대신 능력 있는 가족이 부양하라는 얘기다.

정부는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하고 단계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들어갔다.

그해 11월 1단계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를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 등 현재 3단계까지 기준을 완화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9일 제57차 중생보위에선 부양의무자 가구뿐 아니라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과 상관 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한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소득이 적은데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이른바 '비수급 빈곤' 중증장애인을 약 2만가구로 추산했다.

다만 2만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전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가구의 2.8% 정도에 불과하다. 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3만4534 수급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76.2%인 71만2406가구에 달했다.

이에 2023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애초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정부는 2022년 1월까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끝으로 4단계 로드맵을 짜놓은 바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하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 전체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중증장애인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 내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면서 "내년에 작성할 제2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기본계획에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전 철폐하는 로드맵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신안군복지재단, 무더위 속 병풍도 찾아 시원한 봉사활동

신안군복지재단(이사장 박균보)은 지난 26일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증도면 병풍도를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시원한 호응을 받았다.

이날 봉사에는 신안군복지재단 재능봉사자, 재목신안군여성연합회 회원, 신안군청 공무원 등 30명의 봉사자가 참여했으며, 250여명의 병풍도 주민들에게 즉석 자장면, 미용 봉사, 사랑의 쌀 및 위문품(파스)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신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의 의료봉사와 신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동빨래방서비스가 함께 진행됐다.

신안군복지재단 박균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것은 물론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부응 할 계획이다"며 "폭염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 준 봉사자들에게 고맙다" 고 말했다.

영암군 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영암군 군서면(면장 김인재)은 지난 30일 군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19년 제2차 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인재 공공위원장과 이창열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22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서면 지역 특화사업인 구림손맛나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웃의 행복더하기 연합모금 방법에 대해 논의 했다.

구림손맛나눔 사업은 협의체 위원이 가정에서 직접 만든 건강한 반찬을 독거노인, 청장년 1인가구, 장애인 가구 등에 지원하여 대상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사업이다.

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한 구림손맛나눔 사업 및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에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긴급구호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살맛 나는 환경으로 탈바꿈 해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올해도 협의체 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봉사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순천시 '다문화 가족사랑 캠프' 성료

한국 전통 예절 배워

순천시는 최근 양일간 다문화 가족들의 한국의 전통 생활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다문화 가족사랑 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가족사랑 캠프에는 다문화 가정 10가족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천향교에서 전통혼례와 한복체험, 다례?다식체험 등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한국 전통에 대한 흥미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

첫 날은 향교 전통문화 체험 후 순천만 에코촌에서는 가족간 간단한 레크레이션과 함께 가족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틀째에는 아이들을 위한 스케이트 체험등 부모와 아이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속에 단란한 한 때를 보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유)선비문화예다회 정현숙대표는 "예상보다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해 감사하고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전통 문화체험과 캠프 참여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서로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